

표류하는 문화전당 컨트롤 타워

문화부, 재공모 절차...기관 1년 되도록 직무대행 할 판
아셈문화장관회의·민주평화교류원 개관 등 추진 한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컨트롤 타워인 전당장 선임이 장기지연돼 문화전당 순항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전당 공동운영 법인인 아시아문화원 핵심 보직 2자리도 비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사혁신처는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전문임기제 가급·임기 3년)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사실상 지난 3월2일부터 시작한 공개모집에서 적격자를 뽑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전당장 선임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께 선임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화부는 전당장이 선임되는 시점까지 현행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문화전당이 지난해 9월 부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9개월여 직무대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개관 첫 해인 올해 조직안착과 미래비전 설계 등이 현안임에도 안정적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화전당에는 현재 직무대리 체계로는 통과하기 힘든 과제가 있다. 5·18단체들의 광주항쟁 유적 원상복구 요구로 개관을 못하고 있는 민주평화교류원이 대표적이다. 오는 22일부터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회의(22일~24일) 성공개최 등

리더십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적잖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장 선임지연이 정부의 문화전당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문화전당 개관 이후 선임을 서두르지 않다 올 3월에야 문화전당장 모집공고를 냈고, 이마저도 최근 무산됐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난 2014년 10월 1년 여를 끌다가 문화전당 개관 콘서트 구축 업무를 지휘할 아시아문화개발원(아시아문화원 전신) 원장을 임명한 바 있다. 문화전당측과 함께 문화전당 운영의 양대축인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해 9월 21일 창립이사회에서 기존 4개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정보원·창조원) 예술감독을 해촉하고 실정급 보직을 신설하는 조직변경안을 승인

했다. 이후 공연사업본부장, 아시아문화연구원, 전시사업본부장, 창·제작센터장, 교육사업본부장 등 5개 보직이 신설됐다. 하지만, 최근 상명대 김희정 교수를 공연사업본부장, 조현중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을 아시아문화연구원소장, 박남희 청주공예비엔날레 감독을 교육사업본부장으로 선임했을 뿐, 나머지 두 자리는 공석이다. 전시사업본부장의 공백은 더 커보인다. 오는 9월 개최될 광주비엔날레와 문화전당간 협력 사업을 진행할 보직이기 때문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아셈문화장관 회의가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데도 전당의 대표자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을 어떻게 보는 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세먼지 주범이라는데... 전남 車 절반이 경유차

광주는 39% 차지...광주·전남 디젤 승용차 급속 증가

광주와 전남지역에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의 운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체 운행 차량의 절반 가량이 디젤이고, 광주는 전체 운행 차량 10대 중 4대가 경유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년간 광주·전남에서만 디젤 승용차가 4만6000여대가 늘는 등 디젤 승용차가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등록차량 수는 모두 61만1280대로, 이 중 경유차는 38.5%인 23만5712대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13만1857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8만3559대)과 승합(1만8241대) 순이었다. 광주의 경유차는 ▲2013년말 20만4526대 ▲2014년말 21만8838대로 증가하는 등 매년 1만5000대 가량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4월 31일 현재 전체 등록차량 수는 모두 91만7386대로, 이 중 경유차는 49.8%인 45만7083대다. 이는 전북(45.7%)·대구(38.4%)·경기(40%) 등 다른 광역단체의 경유차 비율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신안이 63.2%(1만9158대 중 1만2105대)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해남 61.7%(3만5945대 중 2만2181대) ▲고흥 59.6%(2만8627대 중 1만

7062대) ▲함평 59.1%(1만6438대 중 9721대) 등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디젤 승용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올해 4월 디젤 승용차가 13만7002대 등록, 지난해 12만1460대 보다 1만5542대 늘어 12.8%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20만대가 등록했다. 지난해 16만8767대에 비해 3만1233대(18.5%) 증가했다. 또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자동차 중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국내 자동차 10대 중 4대 이상은 디젤차라는 얘기다. 문제는 경유차가 내뿜는 배출가스에 미세먼지의 주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휘발유 차량보다 최대 10배나 검출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의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년 전 배출량 기준이 완화돼 있을 당시 생산된 경유 차량과 노후화된 경유 차량이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충장로 꽃길을 걸어요 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 거리에 갖가지 꽃 화분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푸른도시사업소 '꽃거리 조성' 사업으로 설치된 화분들은 충장로와 금남로 4가와 5가 등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임 행진곡' 5·18 기념곡·제창 法 발의

5·18 왜곡·날조 행위 처벌도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목포시)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제창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개정안은 박지원 원내대표 이외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7명 전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법안으로 추진 받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 기념식)를 5·

18 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토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했다. 또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

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라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세난에...서울 인구 1000만 붐비

1988년 인구 1000만명의 '메가시티'가 됐던 서울이 1000만 시대의 막을 내렸다. 전세난 등으로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울 인구는 1000만 붐비고 있다. 1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 28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유례없는 전세난은 서울 탈출을 부추겨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여 이 기간 서울 인구는 10만 9422명 줄었다. 5월 전국 인구는 5160만 1265명으로 1년 전보다 0.36%(18만 7340명)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광주지역 인구는 147만2317명으로 1월에 비해 121명이 줄었다. 전남은 190만4449명으로 1월보다 614명이 감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2016 경제총조사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업에 **힘**이 되도록

2016 경제총조사

2016년 6월 7일 ~ 7월 22일

경제총조사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에 통일된 조사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승인 통계입니다

사업체 정보 유출, No!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도록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사업체가 응답하는 조사입니다
· 조사 대상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 기간 2016년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응답 방법

인터넷 조사
(6.7 ~ 6.30)
응답자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

방문면접조사
(6.13 ~ 7.22)
인터넷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

문의사항
080-200-2016(무료)
월~토 09:00 ~ 20:00
홈페이지
(www.ecensus.go.kr)